

한국 기혼 여성의 세대별 성역할 태도 차이에 대한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여성가족패널(KLoWF) 자료를 중심으로*

이정윤**·김주현***

초 록

지금까지 진행된 성역할 태도 관련 연구에서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전통적이며 연령이 낮은 세대일수록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하며 세대 간 차이를 지적하였다. 하지만 성역할 태도는 구체적인 내용별로 연령 변화에 따른 차이와 역사적, 문화적 사회 경험을 공유한 코호트 집단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성역할 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특정 태도를 유지하고 강화되는 연령 효과(Aging effect)가 실재하는지,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와 연령 효과(Aging effect)가 혼재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1~7차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성역할 태도를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태도로 나누어 살펴본다. 분석 결과 한국 기혼 여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세대에서 진보적인 성역할 태도로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세대별로 변화의 기울기에 차이가 나타나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의 교호작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 시점의 성역할 태도를 세대별로 나누어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세대별로 유의미한 변수가 다르게 나타났다.

주제어 : 기혼여성, 세대, 성역할태도, 코호트효과, 연령효과

*본 논문은 충남대학교 자체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으며, 2019년 여성가족패널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발전시킨 것이다. 유익한 논평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

**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kiv10023@cnu.ac.kr)

***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haha0929@cnu.ac.kr)

I. 서론

세대 차이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현상이지만 현대사회에서 그러한 차이가 점점 심화되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시키는 사회적 메커니즘도 약화되고 있다. 세대 간의 차이는 갈등으로 연결되고 세대 전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현대에는 연애, 결혼을 비롯한 삶의 전반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전영수, 2013). 비혼 및 만혼, 저출산, 성별 갈등 심화, 여성혐오 등의 다양한 현대 사회문제의 발생에는 신자유주의 도래에 따른 정치, 경제적 이유가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여성 교육률 및 취업률 증가 등으로 이루어진 성역할 태도 등의 사회 인식의 변화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박경숙·서이종·장세훈, 2012; 정순둘·배은경·최혜지, 2012).

성역할 인식 및 태도의 양상을 살펴보고 성별, 연령 및 세대, 직업 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최근에는 세대별로 성역할 태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세대의 변화에 따라 성역할 인식 및 태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인식하고 나이, 생애 단계별로 세대를 분류하여 구성하거나 역사적 경험을 같이 공유한 출생 코호트별로 나누어 성역할 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다. 기존의 성역할 태도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남녀를 비롯한 현대 20~30대 청년세대는 중장년, 노년세대와 달리 남자는 생계, 여성은 육아·가사 책임의 고정된 성역할 태도 및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통적 성역할 인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요인보다도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유지하고 연령이 낮은 세대일수록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김혜영, 2005; 백선미, 2006; 원숙연, 2014; 원숙연·김예슬, 2017; Treleavan, 2015).

그러나 이와 달리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이 경제적 활동 때문에 자녀에게 돌봄과 안정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부족해 집중적인 양육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자녀의 정서적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불안정 애착을 낳을 수 있다고 보는 애착이론이나 모성 박탈과 관련해 여성이 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라고 보는 '모성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태도의 경우 세대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기도 한다(김정운, 2001; 신송이, 2016; 이선형, 2011). 그러므로 성역할 태도의 내용별로 연령 집단 또는 비슷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화 경험을 한 세대 집단별로도 다양한 모습을 보이므로 일관

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러한 세대 차이는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 외에도 연령 효과(Aging effect), 기간 효과(Period effect) 등이 혼재되어 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같이 성역할 태도는 나이가 들수록 전통적 인식을 유지하고 이것이 강화되는 연령 효과(Aging effect)가 실재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특정 세대에만 나타나는 현상인지, 모든 세대에 균질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인지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세대에서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대에서만 교호작용이 작동하여 다른 변화 패턴을 보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격적인 APC(Age-Period-Cohort)효과 분석이 아니며 연령과 코호트의 혼재 효과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세대별 성역할 태도 변화에 나타나는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를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의 교호작용이 작동하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먼저 세대구분 기준을 정하여 세대를 나누어 구성한다. 그리고 각 세대 간 나타나는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용된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구성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세대구분

기본적으로 세대는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세대 개념은 다른 세대에 비하여 어느 세대가 갖는 ‘새로움’과 ‘다름’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용어이다. 세대 문제를 사회학적 시각에서 최초로 체계화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만하임(Mannheim, 1952)은 상호 공유된 경험의 효과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세대의 실질적 의미를 공유된 경험을 기반으로 공동운명체로서의 강고한 연대감을 가지며, 사회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운동 세력으로 정의한다. 만하임은 질적으로 다른 성장배경이 세대 차이를 형성하는 주요인이라 보았다(Mannheim, 1952; 김명언·김의철·박영신, 2000).

인구학자 라이더(Ryder, 1965)는 코호트 혹은 세대는 사회계급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 경험의 “대리 지표(surrogate indices)”이기 때

문에 설명력을 갖고, 유용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많은 학자들은 세대 구분을 위한 세대 간 경계선 설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첨예한’ 사건, ‘결정적’ 집단 경험, ‘역사적 유의미성’의 객관적 기준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보았다. 결국 그에 대한 판단은 연구자의 통찰력과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동일 학문 분야 혹은 다른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나 소통이 개별 연구자의 임의성, 자의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박재홍, 2017).

세대 개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미국의 사회학자 켈처(Kertzer, 1983)는 첫째, 조부모 세대-부모 세대-자녀 세대와 같이 ‘친족계보에서 동일 항렬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 둘째,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비슷한 생애 주기 단계에서 역사적-문화적 사회화 경험을 공유하는 ‘출생코호트’의 의미, 셋째, 젊은 세대, 나이 든 세대, 혹은 대학생 세대와 같이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 넷째, 역사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듯이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생존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세대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처럼 세대 개념은 매우 모호하고 각기 다양하다. 10대 청소년 세대, 대학생 세대, 기성세대, 노인 세대 등으로 연령이나 생애 단계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부모-자녀관계를 가리키기도 하며, 4·19세대, 근대화 세대 등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대 연구에서 그 단위는 10대, 20대와 같이 10년 단위로 분류하거나 편의상 5년을 주기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구분 모두 각기 연령적 경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세대 개념에서는 연령범주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사회의 심각한 이념갈등과 상당히 증척되는 세대갈등에 관심을 가지고 1970년대부터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전상진, 2002; 조성남·박숙미, 2002; 한완상, 1991). 그러나 2000년대 이전까지는 많은 연구들에서 세대구분이 단순히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대학생세대, 노년세대 등으로 인구학적 연령집단과 생애단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이후 시대특성과 문화적·형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저널리스트, 마케팅 전문가, 학자들에 의해 386세대, 88만원 세대, 신세대, X세대 등 수많은 세대구분과 세대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박재홍, 2009; 전상진, 2002).

한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변동이 빠르고 컸기 때문에 세대 형성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홍덕률(2003)은 한국 사회의 변동과정을 고려하여 산업화와 민주화 정보화를 세대구분의 지표로 설정하고, 산업화세대(1952년 이전 출생), 민주화세대(1953년~1969년 출생), 정보화세대(1970년 이후 출생) 등으로 구분하였다. 박재홍(2017)도 한국사회의 세대

를 출생코호트에 따라 식민지·전쟁체험세대(~1940년 출생), 산업화·민주화운동세대(1941년~1970년 출생), 탈이념·정보화세대(1971년~2016년 출생)로 구분하여 이용하였다. 이러한 대분류 방식은 “결정적 집단경험”(Mannheim, 1952)의 차이에 주목하여 동시대인을 크게 세 범주로 나누는 것으로 세대의 분기점을 1930년대 말 무렵과 1970년경으로 본 것이다. 식민지·전쟁체험세대가 유교적 가치관을 깊게 내면화한 세대라면 그러한 가치관이 점차 퇴색되고 그 대신 개인주의, 탈권위주의, 소비주의 가치관을 특성으로 가지는 세대가 산업화·민주화운동세대, 탈이념·정보화세대라 할 수 있다.

2. 성역할 태도 및 인식

성역할 태도(gender role attitudes)는 가족에 대한 가치,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는 한 문화권 내에서 통용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이자 고정관념이라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사회적 역할 차이가 극명한 사회일수록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는 ‘여성(혹은 남성)으로서의 나’를 의미하며 ‘여성으로서의 나’는 ‘남성으로서의 나’와는 다른 사회적 요구와 기대 속에서 같은 시·공간을 살더라도 서로 다른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홍지아, 2014).

성역할 인식 및 태도를 논의할 때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는 공-사영역의 이분법(public-private dichotomy)이다. 이는 일과 가정에 대한 사회적 규범으로, 노동시장으로 대변되는 공적영역과 가정으로 표상되는 사적영역 간에 명확한 경계가 존재하며, 전자는 남성의 영역으로 후자는 여성의 영역으로 규정하는 성별 노동 분업체계를 말한다(원숙연, 2014). 공-사 영역의 이분법은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로 확장되는데, 이는 엄격한 성별분리체계에 기초하여 남성(아버지)은 가족의 경제적 부양을 책임지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고, 여성(어머니)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무급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는 것이 ‘정상가족’이라고 전제한다(원숙연, 2014; 원숙연·김예슬, 2017; Crompton, 2001; Lewis, 2001; O’Connor, Orloff & Shaer, 1999).

이와 같이 남성은 공적영역에서 임금노동을 하고 여성은 사적영역에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여성의 종속과 성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기제로 작용한다.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는 남성의 임금으로 아내와 자녀 부양을 위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를 내포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노동시장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를 정당화하고, 유급노동에 있어 남성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노동시장과 가정에서 여성의 종속을 심화시키는데 기여한다(신경아, 2014).

성역할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또 하나는 ‘모성 이데올로기(motherhood ideology)’이다. ‘모성 이데올로기’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여성의 본질적 정체성이며, 자녀양육에 있어서 ‘모성애’라는 생물학적·태생적 본성을 지닌 여성은 남성과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녀의 성장에 대해 어머니가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는 ‘엄마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적 신념체계이다(이미경, 2004; 조숙·정혜정·이주연, 2015; Hattery, 2001). ‘모성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일차적 영역을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규정함으로써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모성 이데올로기’는 출산이라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과 연결됨으로써 ‘본질주의적’ 속성을 갖기 때문에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에 비해 강력하고 근본적인 규범으로 볼 수 있다(김복순, 2007).

‘모성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연결되면서 ‘모성 박탈(maternal deprivation)’로 확장된다. 모성 박탈은 어머니가 부재하거나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부족할 경우 자녀, 특히 영유아기 아동의 정서적, 심리적 발달 및 안녕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문제는 자녀가 성장한 후에도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한다. 결국, 여성(어머니)이 노동시장에 진출하여 경제적 활동을 하는 등의 이유로 엄마역할의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경우 모성 박탈로 이어진다는 논리이다(Elvin-Nowak & Thomsson, 2001; 원숙연, 2014).

3. 성역할 태도 영향요인

1) 독립변수 : 세대코호트

동일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세대코호트에 따라 각기 다른 역사·문화적 경험의 차이로 다양한 측면에서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동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인식틀이 약화되거나 허물어지게 되면서 세대간 격차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김명언·김의철·박영신, 2000, 한완상, 1991). 젊은 세대이며, 남성보다 여성이 남녀 평등의식, 개인주의 경향 등이 크게 증가하며 더 큰 시대 변화를 보이고 있다(나은영·민경환 1998; 나은영·차재호, 1999; 정태연·한광희, 2001).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도 세대코호트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 관심이 높아졌다. 기존 연구들은 연령, 생애단계별로 세대를 분류하여 구성하거나 역사적 경험을 같이 공유한 출생 코호트별로 나누어 성역할 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많은 연구에서 연령을 비롯하여 출생 코호트에 따라 집단적 사회경험을 공유하면서 시대 변화를 겪은 세대로 구성된 코호트적 의미의 세대 변수가 성역할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 2005; 백선미, 2006; Treleavan, 2015). 그러나 성역할 태도를 남성부양자 역할, 엄마 역할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해본 경우에는 연령의 효과가 일부 성역할 태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기도 하며 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원숙연, 2014).

2) 통제변수

(1) 개인 요인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종교, 취업상태 등의 변수를 개인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연령의 영향력이다. 통상적으로 나이가 적을수록 보다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인다(김소정, 2013; 문영표, 1989; 백선미, 2006; 은기수·이윤석, 2005; 이선미, 1995; 최규련 1984). 이는 1970년대 이후 유럽, 미국 등을 시작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성평등의 가치와 교육이 확산되고 이를 위한 사회제도의 변화의 영향 하에 사회화가 이루어지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Twenge, 1997; 이정아, 1997; 이은아, 2009; 김소정, 2013). 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 및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여타의 사회적 인식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전통적, 보수적인 태도 및 인식을 고수하며, 또한 고착화되기 때문이다(정순돌·배은경·최혜지, 2012; 한완상, 1991).

둘째, 교육수준의 영향력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대적이고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갖는다고 보고된다. 교육은 가치관의 변동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교육을 통해 평등한 성역할 규범을 학습하여 근대적인 가치관 형성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은 대표적인 인적자본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남녀 모두 노동시장 참여의 기회가 함께 높아진다. 따라서 현실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은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보살핌과 자녀 양육이라는 성별화된 이분법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근대적 성역할 태도 및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Sjöberg, 2004; Fortin, 2005; 김소정,

2013; 김영미·류연규, 2016; 백선미, 2006; 원숙연, 2014).

셋째, 주관적 건강상태도 성역할 태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관적 건강상태나 질병, 스트레스, 위기 등은 성역할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성 정체감이 공식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성역할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Money & Erhardt, 1972; Derogatis & Melisaratos, 1979; 이병숙·김명애·고효정, 2002), 성역할 정체감은 자아존중감,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 건강 행위 수행 및 지각된 건강상태 등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다(Choi et al, 1999; 이병숙·김명애·고효정, 2002). 특히 노인의 성역할 태도와 관련한 연구들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성역할 태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신숙·이경주, 1999).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개인 스스로 지각하는 건강상태로서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를 의미하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대상의 건강 상태 뿐 만 아니라 삶의 질 등이 폭넓게 측정된다는 점에서 다수의 연구들이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Millán-Calenti JC, et al., 2012; Kawada, 2003 ; 이진정·마예원, 2013).

넷째, 종교의 영향력이다. 종교적 신념은 성역할이나 동성애와 같은 성과 연관된 인식 및 태도에 있어 전통적 모습을 보이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 왔으며,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로 이용되어 왔다 (Jensen & Jensen, 1993; Treleaven, 2015; 김소정, 2013; 백선미, 2006).

다섯째, 취업상태도 영향을 미친다. 남성과 달리 여성의 취업상태는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nayotova & Brayfield, 1997). 취업 여성은 미취업 여성에 비해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와 관련해 근대적 인식을 가짐으로써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취업형태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전일제 근로(Working Full-time) 여성은 성역할에 대해 더 평등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제 근로(Working Part-time) 여성과 전업주부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Treleavan, 2015). 이는 전일제 근로여성의 경우 이미 양성 의 태도 모두를 교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Krausz, 1986; Kulik, 2002; 김소정, 2013).

(2) 가족 환경적 요인

먼저 자녀의 수도 성역할 태도에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 인식을 갖는 경향이 있다(유계숙, 2010; 원숙연·김예슬, 2017; 한지숙·유계숙, 2007). 이러한 결과는 시대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 1980년대 연구에서도 자녀의 수가 성역할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다(박미금, 1984). 특히 자녀의 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가능성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모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원숙연·김예슬, 2017).

다음으로 소득수준의 영향력이다. 가구의 소득수준이 성역할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 소득은 경제적 자원으로 여성(어머니)의 성역할을 대체할 자원을 외부로부터 구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 및 인식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가구소득의 기여분에 따라 서로 다른 인식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에서 남성으로부터의 소득 기여가 높을 경우는 전통적 인식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남성으로부터의 소득기여분이 낮을 경우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 및 인식을 보일 수 있다(김소정, 2013; 김영미·류연규, 2013; Kulik, 2002; Panayotova & Brayfield, 1997).

셋째, 거주 지역의 영향력이다.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경우 비도시 지역에 거주자 보다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비도시 및 농촌 지역은 인구 구성에 있어 노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새로운 가치의 유입이 활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원숙연·김예슬, 2017).

넷째, 결혼생활 만족도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성역할 태도가 결혼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왔으며 부부가 평등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일 때 부부 모두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일관되지는 않고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 때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도 있다(윤경자, 1997). 성역할 태도는 가족 생활주기에 따라 모든 연령의 부부의 결혼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임나현, 2016; 전혜성·서미아, 2012).

마지막으로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의 영향력이다. 성역할 태도와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보통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가사노동 분담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윤명희·임정빈, 1985; 이미숙, 1996).

가사노동 분담은 특히 남성의 성역할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Hiller & Philliber, 1986; Ishii-Kuntz & Coltrane, 1992). 남성의 성역할 태도는 가사노동 분담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또 여성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여성이라면 가사노동 분담 정도가 낮더라도 만족도가 높을 수 있으며,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인 여성은 가사노동 분담이 높은 편이어도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성역할 태도와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는 서로 다른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사노동 분담은 결혼만족도와도 연관이 있으며(문숙재·허경옥·홍윤정, 1997; 유계숙, 2010; 윤명희·임정빈, 1985, 이미숙, 1996) 상호 영향을 미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 기혼 여성의 성역할 태도에 나타나는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여성가족패널(KLoWEP,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y)”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동일한 사회적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유사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공유했으리라 가정하는 코호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코호트를 구분하고 동일 코호트를 추적하여 연령 변화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차이 비교를 위해 “여성가족패널(KLoWEP)” 1~7차(2007~2018)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종속변수로 이용한 성역할 태도와 관련한 문항은 기혼 여성인 경우에 보다 실질적인 본인 경험에 기반하여 응답할 수 있는 내용이며, 통제변수로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결혼생활 만족도(행복감) 등의 요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 중인 기혼 여성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2018년 기준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30.4세인 것을 고려하여 1차~7차(2007~2018) 조사 대상자 중 편의상 30세 미만의 연령 및 세대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분석대상은 30세 이상 연령 중 기혼 여성으로 한정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에는 1차 8,752명, 2차 7,586명, 3차 7,532명, 4차 6,902명, 5차 6,685명, 6차 6,552명, 7차 7,990명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한국 기혼여성의 성역할 태도의 세대별 차이에 나타나는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의 교호작용을 검증하기 위한 횡단면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가족패널(KLoWEP)” 7차(2018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7차 조사 대상자

중 분석대상은 30세 이상 기혼 여성으로 한정하여 전체 분석에는 6,651명이 포함되었다. 코호트 효과와 연령효과를 검증하고, 둘의 교호작용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 분석은 STATA 14.0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초 통계 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2. 분석 변수

1) 성역할 태도

“여성가족패널(KLoWEP,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y)”에서는 가족 내 역할과 관련해서 1차(2007년)~7차(2018년)까지 총 6개의 문항을 동일하게 조사해왔다. 변수 설정에 앞서 6개 문항을 탐색적 요인분석한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¹⁾ 이에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남녀 성역할태도를 묻는 문항이 속한 요인2에 주목하였고, 국제적 논의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항(ISSP의 가족과 젠더역할 변화에 관한 조사 모듈의 문항)과 기존 유사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통되는 2개의 문항을 선택하게 되었다. 2개 문항은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로 각각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문항이다(김영미·류연규, 2016; 원숙연·김예슬, 2017).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개 문항은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근대적이고 평등지향적, 점수가 낮을수록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문항과 ‘모성 이데올로기’ 관련 문항은 각각의 측정값을 변수로 구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전체 성역할 태도는 2개 문항의 평균점수로 구성하여 이용하였다.

1) 총 6개의 문항을 탐색적 요인 분석한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KMO (Kaiser-Meyer-Olkin) 값은 0.651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도 유의하게(Sig=0.000) 나타났으며,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높았다. 요인1은 평등한 부부관계와 관련한 문항이었으며, 요인2는 남녀의 성역할과 관련한 문항이었다.

〈표 1〉 성역할 태도 구성문항과 관련 이론

	질문 항목	관련 이론
성역할 태도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모성 이데올로기’

2) 코호트 구분

본 연구는 역사적 경험을 구성 기준으로 하여 시대 특성을 반영한 세대 구분을 강조한 박재홍(2017)의 출생코호트별 세대 구분과 명칭을 바탕으로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 탈이념·정보화코호트로 구분하여 명칭을 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패널(KLoWEP)” 7차(2018년)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는 1953년 이전에 출생한 65세 이상의 인구를 포함하는 코호트로 구성하였고,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는 1954년부터 1970년 사이에 출생한 48세 이상 ~ 64세 이하 연령 인구, 탈이념·정보화코호트는 197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출생한 30세 이상 ~ 47세 이하 연령 인구로 정하였다.

〈표 2〉 코호트 구분과 명칭(2018년 기준)

코호트 명칭	출생 시기	연령 구분
탈이념·정보화코호트	1988~1971년	30세 이상 ~ 47세 이하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	1970~1954년	48세 이상 ~ 64세 이하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	~1953년	65세 이상

“여성가족패널(KLoWEP)” 1~7차(2007~2018) 조사의 코호트별 빈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1차(2007년) 조사의 30세 미만 연령을 제외한 전체 표본 8,752명 중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 비율이 29.0%,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1~1954년) 48.6%,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 22.4%로 나타났으며, 7차(2018년) 조사에서는 전체 표본 7,990명 중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 비율이 31.9%,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1~1954년) 48.1%,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 20.0%로 나타났다.

〈표 3〉 조사 자료의 코호트별 빈도

코호트명 및 출생 시기	1차 (2007)	2차 (2008)	3차 (2010)	4차 (2012)	5차 (2014)	6차 (2016)	7차 (2018)
탈이념·정보화코호트 (1988~1971년)	2,535 (29.0)	2,203 (29.0)	2,307 (30.6)	2,000 (29.0)	1,954 (29.2)	1,959 (30.0)	2,550 (31.9)
산업화·민주화 운동코호트 (1971~1954년)	4,255 (48.6)	3,620 (48.6)	3,456 (45.9)	4,255 (46.7)	3,094 (46.3)	2,956 (45.3)	3,841 (48.1)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 (~1953년)	1,962 (22.4)	1,763 (22.4)	1,769 (23.5)	1,962 (24.3)	1,637 (24.5)	1,607 (24.6)	1,599 (20.0)
총계(%)	8,752 (100%)	7,586 (100%)	7,532 (100%)	6,902 (100%)	6,685 (100%)	6,552 (100%)	7,990 (100%)

3) 통제변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구성한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관련 변수들을 개인 요인(연령, 교육수준, 건강, 종교, 취업상태), 가족 환경적 요인(자녀수, 가구소득, 거주 지역, 결혼생활 만족도,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으로 구성해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변수 정의와 측정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변수 정의 및 속성

구분	요인	변수명	변수속성(변수값)
종속변수	성역할 태도 요인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	(기초통계분석) 서열변수(1. 매우 그렇다 /2. 조금 그렇다/3. 별로 그렇지 않다/4. 전혀 그렇지 않다)
		'모성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	(회귀분석) 더미변수(0 전통적)/1 근대적
		전체 성역할 태도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 올로기' 관련 태도 변수의 평균값
독립변수	코호트 요인	코호트	명목변수(1. 탈이념·정보화코호트/ 2.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 3.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
통제변수	개인 요인	연령	비율변수(세)
		교육수준	명목변수(1. 무학/2. 초등학교/ 3. 중학교/4. 고등학교/5.대학교/ 6. 대학원 석사 과정/ 7. 대학원 박사 과정)
		주관적 건강상태	서열변수(1. 매우 나쁘다/2. 조금 나쁜 편이다/3. 보통이다/4. 대체로 좋은 편이 다/5. 매우 좋다)
		종교	명목변수(1. 유교/2. 불교/3. 기독교 및 천주교/4. 기타 및 종교 없음)

구분	요인	변수명	변수속성(변수값)
	가족 환경적 요인	취업상태	명목변수(0. 무직/1. 임금근로자/ 2. 자영업자/3. 기타)
		자녀수	비율변수(명)
		가구소득(연간)	비율변수(백만원)
		거주 지역	명목변수(1. 수도권/2. 충청권/3. 영남권 /4. 호남권/5. 강원권/6. 제주도)
		결혼생활 만족도	등간변수(1~10점)
		가사노동 부담 만족도	서열변수(1. 전혀 만족하지 않음/ 2. 별로 만족하지 않음/3. 보통/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3. 분석 방법

이러한 변수 구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세대별로 성역할 태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며 그 변화에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의 교호작용(interaction)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주목한다. 사실 세대별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세대효과는 또래집단, 즉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기간효과로 구별될 수 있으며 이것들이 동시에 나타난 결과이다.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기간 효과는 서로 명확하게 식별해내기 어렵다(이지연, 2008). 성역할 태도와 관련해서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아 크게 변하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유지되거나 변화해가는 특성의 사회적 인식 및 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간 효과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를 각각 살펴보고 둘의 교호작용에 더 관심을 가진다.

개별 코호트별로 연령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간의 합성효과가 존재할 경우 두 효과를 구분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연구 디자인을 필요로 한다(Schaie & Parham, 1997; 이갑운, 2008).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은 기존의 코호트 분석모델을 활용하여 성역할 이데올로기의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패턴을 추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분석에서 살펴본 교호작용은 연령 변수와 코호트 변수간의 상호작용을 모형에 포함시켜 그 영향력의 크기까지 검증하는 정교한 방법은 아니다. 그렇지만 본 분석을 통해서 그동안 짐작으로 제기되었던 특정 코호트에서 연령효과가 차별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밝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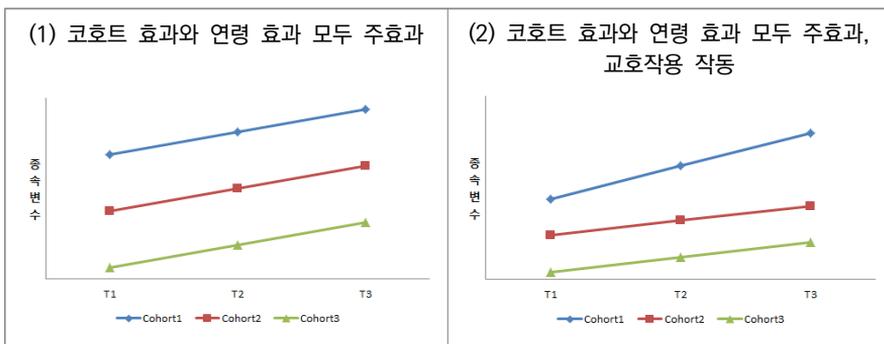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의 교호작용이 발생하면 개별 코호트별로 연령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 효과인 연령 효과가 전 세대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이내영·정한울, 2013). 개별 코호트에서의 차별적인 연령 효과가 나타나는 교호작용은 특정시점의 자료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오랜 기간 축적된 자료와 각 효과간의 합성 효과를 구별하기 위한 부가적인 이론적 가정과 다양한 이론모델을 구축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통계검증을 통한 경험적 검증방법 대신 발테스(Baltes)가 유형화한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패턴을 기준으로 여성의 성역할 태도에 나타나는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의 관계를 역으로 추론하는 방법을 차용하였다(이내영·정한울, 2013).

발테스(Baltes)의 코호트와 연령 효과 사이의 주효과(main effect)와 상호 교호작용(interaction effect)이 나타나는 패턴 중, 코호트 간 간격이 큰 변화가 없지만, 모든 코호트에서 시간변화에 따라 절대값의 상승이 나타나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가 동시에 주효과로 나타는 유형(1)과 코호트 간 태도차이가 존재하면서도 시간 변화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태도변화가 나타나는 점에서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모두 주효과로 나타나지만 기울기의 차이가 있어서 특정 코호트와 연령 효과 사이의 작용이 나타나는 유형(2)를 참고로 하여 성역할 태도 변화의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의 교호작용을 추론하는 방식으로 검증하고자 한다(Baltes, 1968; 이내영·정한울, 2013).

이것을 위해서 “여성가족패널(KLoWEP)” 1~7차(2007~2018) 자료를 이용해 연령코호트별 성역할 태도 변화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와 ‘모성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그림 1] Baltes의 Byfactorial Model에 근거한 코호트*연령 효과 패턴 모형

IV. 분석결과

1. 동일코호트의 연령변화에 따른 성역할 태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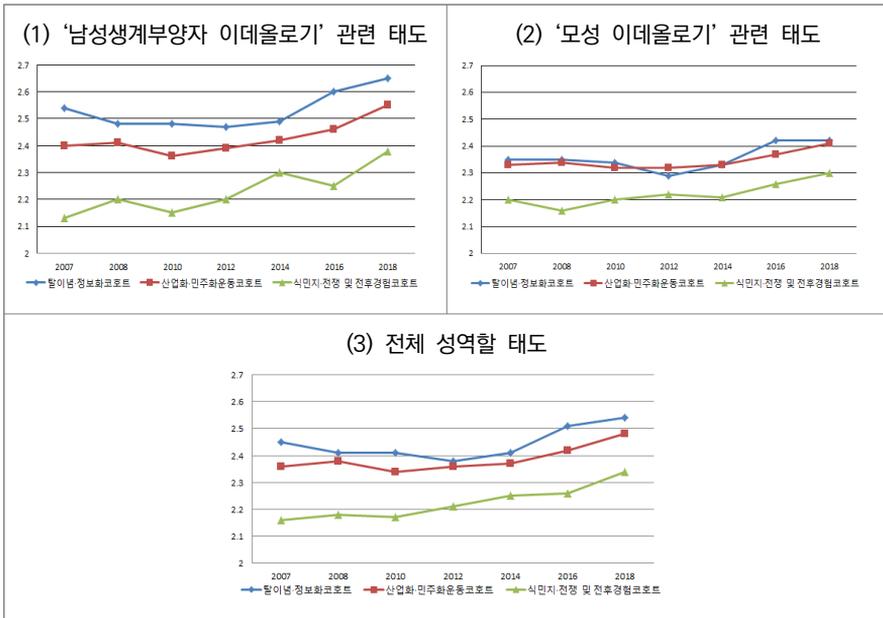
1차(2007년)~ 7차(2018년) 조사에서 동일코호트의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성역할 태도의 평균 점수는 <표 5>와 같다. 기초 통계 분석에서 이용한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성역할 태도 변수는 기존 조사 자료 그대로 등간 변수로 구성되어 이용하였으며, 이는 4점 척도로 동의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이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근대적이고 진보적, 점수가 낮을수록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 성역할 태도’ 변수는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성역할 태도 변수의 평균 점수로 구성된 변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근대적이고 진보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표 5> 출생 코호트별 성역할 태도 변화

단위: 점

조사 년도	변수	연령 코호트		
		탈이념·정보화 코호트 (1988~1971)	산업화·민주화 운동코호트 (1971~1954)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 (~1953년)
2007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n=8,752)	2.54	2.40	2.13
	‘모성 이데올로기’(n=8,752)	2.35	2.33	2.20
	전체 성역할 태도(n=8,752)	2.45	2.36	2.16
2008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n=7,568)	2.48	2.41	2.20
	‘모성 이데올로기’(n=7,568)	2.35	2.34	2.16
	전체 성역할 태도(n=7,568)	2.41	2.38	2.18
2010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n=7,532)	2.48	2.36	2.15
	‘모성 이데올로기’(n=7,532)	2.34	2.32	2.20
	전체 성역할 태도(n=7,532)	2.41	2.34	2.17
2012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n=6,902)	2.47	2.39	2.20
	‘모성 이데올로기’(n=6,902)	2.29	2.32	2.22
	전체 성역할 태도(n=6,902)	2.38	2.36	2.21
2014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n=6,685)	2.49	2.42	2.30
	‘모성 이데올로기’(n=6,685)	2.33	2.33	2.21
	전체 성역할 태도(n=6,685)	2.41	2.37	2.25

조사 년도	변수	연령 코호트		
		탈이념·정보화 코호트 (1988~1971)	산업화·민주화 운동코호트 (1971~1954)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 (~1953년)
2016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n=6,552)	2.60	2.46	2.25
	'모성 이데올로기'(n=6,552)	2.42	2.37	2.26
	전체 성역할 태도(n=6,552)	2.51	2.42	2.26
2018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n=7,990)	2.65	2.55	2.38
	'모성 이데올로기'(n=7,990)	2.42	2.41	2.30
	전체 성역할 태도(n=7,990)	2.54	2.48	2.34



[그림 2] 코호트별 성역할 태도의 변화 패턴(점)

[그림 2]는 각 조사년도의 코호트별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성역할 태도의 평균 점수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시간 변화에 따른 동일코호트의 성역할 태도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연령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는 1차(2007년)에 서부터 7차(2018년)까지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가 7개년도 평균 2.5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성별 분업에 대해 가장 근대적, 평등 지향적인 태도 및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

(1971~1954년)도 평균 2.43점으로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의 평균 2.23점 보다 높게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는 남성생계부양자 이론과 관련하여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에 비해 조금 더 근대적, 평등 지향적인 태도 및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발테스의 추론모델 중 유형(2)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는 모든 코호트에서 더 진보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그 기울기가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1~1954년)에서는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 보다 조금 더 작게 나타나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의 교호작용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세대보다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는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태도 점수가 시간이 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파르게 증가하고 각 년도마다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

‘모성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태도 또한 1차(2007년)에서부터 7차(2018년)까지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가 평균 2.36점으로 가장 높았다.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1~1954년)는 평균 2.35점,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가 평균 2.22점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 보다 ‘모성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태도는 모든 년도, 모든 코호트에서 평균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보이며 코호트간 격차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동일 코호트의 세대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에 따른 성별 분업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비해 ‘모성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태도에 있어서는 세대에 관계없이 모두 자녀 양육은 여성의 역할이 크게 필요하다는 전통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은 점수를 보이는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와 달리 ‘모성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는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에서 2016년과 2018년 기준 동일한 점수를 보이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전통적,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태도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살펴보면, 발테스의 추론모델 중 (1)과 (2) 유형이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와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1~1954년),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의 점수 모두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동일한 간격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중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1~1954년),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는 각

코호트별로 간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모든 세대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하고 있음으로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가 동시에 주효과로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는 산업화·민주화운동 코호트(1971~1954년)와 변화 패턴이 거의 맞물려 나타나지만, 자세히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울기가 크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코호트 별로 시간변화에 따른 태도 변화의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부분에서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의 교호작용을 추론해볼 수 있다고 보인다.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와 ‘모성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성역할 태도 점수를 합산해 구성한 전체 성역할 태도 또한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 평균 2.44점,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1~1954년) 평균 2.39점,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 2.22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 세대에서 모두 근대적, 진보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모성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태도 그래프와 유사하게 추론 모형 중 유형(1)과 (2)가 혼재된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와 ‘모성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성역할 태도 점수를 합산해서 보았을 때에는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와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1~1954년),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수가 증가하며 근대적, 평등적 태도를 보이고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1~1954년)와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는 직선의 기울기도 비슷하게 나타나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가 동시에 주효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는 다른 두 세대보다 어느 시점에서 더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기울기에 차이가 나타나 교호작용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2. 동일 시점의 연령코호트 간 성역할 태도 차이

1)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의 차이

동일 시점의 연령코호트 간의 태도 차이를 비교하여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간의 교호작용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기간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단일 횡단면 자료(“여성가족패널(KLoWEP)” 7차(2018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에 대한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와 그 교호작용을 살펴보고자 각 세대 변수를 바탕으로 모델을 구성하여 로지스

텍 회귀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델 1을 보면, 모든 세대에 있어서는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에 대해 연령, 교육수준과 취업상태,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거주 지역 변수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 변수와 주관적 건강상태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성별 분업에 대해서 근대적, 평등지향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직에 비해 취업상태가 임금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 기타 등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근대적인 인식을 가진다. 또한 가사노동 분담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근대적이고 진보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도권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역에 따라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만 분석한 모델 2에서는 취업상태와 가구소득,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거주 지역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는 무직에 비해 일을 하고 있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 성별 분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근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태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1~1954년)를 분석한 모델 3을 살펴보면, 취업상태와 가구소득,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거주 지역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보적, 평등지향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모델 4는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 여성의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를 분석하였다.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는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1~1954년)의 태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구소득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무직에 비해 임금근로자 일 때와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보적, 평등지향적인 태도를 가지는 반면,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을수록 전통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 여성의 경우에 가사와 돌봄 등의 활동이 가능하고 따라서 이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세대와 상관없이 취업상태와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변수는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가구소득 변수는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와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1~1954년)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

(~1953년)의 태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는 은퇴 후 가구소득이 줄어드는 시기로 태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구소득은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증명되었다.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에서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1~1954년)에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수준도 다른 세대와 달리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1~1954년)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1의 전체 응답자 분석에서는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 효과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세대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다르게 나타나 코호트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각 세대를 구분한 모델들에서는 연령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간의 교호작용이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6〉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0=전통적, 1=근대적)	모델1 전체 (N=6,651)		모델2 탈이념·정보화 코호트 (N=2,401)		모델3 산업화·민주화 운동코호트 (N=3,226)		모델4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 (N=1,024)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연령(1세 단위)	-0.006†	0.003	0.012	0.010	0.005	0.009	-0.018	0.022
교육수준	0.107**	0.034	0.121	0.078	0.107*	0.047	0.073	0.077
자녀수	-0.039	0.028	-0.052	0.056	-0.011	0.044	-0.043	0.055
취업상태 (무직 기준)								
임금근로자	0.521***	0.062	0.533***	0.094	0.570***	0.090	0.490*	0.235
자영업자	0.614***	0.086	0.823***	0.159	0.603***	0.115	0.367	0.247
기타	0.479***	0.079	0.578**	0.189	0.623***	0.109	0.138	0.166
가구소득	0.032***	0.009	0.029†	0.016	0.000**	0.000	0.007	0.032
종교(유교 기준)								
불교	0.013	0.553	0.524	1.465	0.163	0.681	-1.096	1.237
기독교 및 천주교	0.039	0.554	0.565	1.464	0.132	0.682	-0.952	1.242
기타 및 종교없음	0.112	0.552	0.632	1.462	0.214	0.680	-0.795	1.239
가사노동 부담 만족도	0.157***	0.029	0.174***	0.049	0.097*	0.041	0.308***	0.079
결혼생활 만족도	0.031	0.035	0.021	0.065	0.075	0.050	-0.091	0.084
주관적 건강상태	-0.050**	0.018	-0.015	0.032	-0.034	0.027	-0.146**	0.047

종속변수 (0=전통적, 1=근대적)	모델1 전체 (N=6,651)		모델2 탈이념·정보화 코호트 (N=2,401)		모델3 산업화·민주화 운동코호트 (N=3,226)		모델4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 (N=1,024)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거주 지역 (수도권기준)								
충청권	0.431***	0.084	0.556***	0.138	0.396**	0.119	0.265	0.248
영남권	0.039	0.069	0.048	0.109	0.018	0.099	-0.004	0.223
호남권	0.260**	0.082	0.549***	0.142	0.054	0.118	0.287	0.232
강원권	0.957***	0.136	0.829**	0.255	0.816***	0.188	1.368***	0.334
제주도	-0.569***	0.160	-0.400†	0.227	-0.713**	0.251	-0.840	0.604
상수	-0.799	0.638	-2.401	1.597	-1.644	0.928	1.834	2.012
LR chi2	348.39		134.57		142.98		65.73	
자유도	18		18		18		18	
유의확률	0.0000		0.0000		0.0000		0.0000	
Log-likelihood	-4421.0278		-1565.9593		-2160.12		-670.99832	
Pseudo R ²	0.0379		0.0412		0.0320		0.0467	

주: †p<.10, *p<.05, **p<.01, ***p<.001

2) ‘모성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태도의 차이

〈표 7〉은 ‘모성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태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먼저 전체 코호트를 분석한 모델 1을 보면, 모든 세대에 있어서는 교육 수준과 취업상태, 거주 지역 변수의 효과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취학 아동이 있는 여성의 취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근대적 인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직에 비해 취업상태가 임금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일수록 근대적인 인식을 가진다. 그리고 수도권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역에 따라 ‘모성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호남권과 제주도에서 전통적,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만 분석한 모델 2에서는 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와 거주 지역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는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무직에 비해 일을 하고 있을수록 ‘모성 이데올로기’와 관련해 근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태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1~1954년)를 분석한 모델 3을 살펴보면, 취업상태와 거주 지역 변수만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을 하고 있을수록 진보적, 평등지향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거주 지역별로도 태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모델 4의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는 다른 두 세대와 공통적으로 취업상태, 거주 지역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유일하게 결혼생활 만족도와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가 태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에 따라 태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무직에 비해 임금근로자 일 때와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전통적,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다른 세대와 상반되게 나타났다. 앞의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태도에서도 노인 여성들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만족할수록 전통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모성 이데올로기’와 관련해서는 50년대 이전에 출생한 여성들의 경우 어머니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이선형, 2011) 건강상태가 양호하면 본인이 직접 돌봄 노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고 여성이 자녀 양육에 집중해야 하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코호트와 상관없이 취업상태와 거주 지역 변수가 ‘모성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모든 코호트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보다 일을 하는 경우에 여성이 일을 하면 미취학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보며 근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본인이 인식하기에 어머니가 일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연령 변수는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에서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코호트에서와 달리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에서는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의 교호작용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 변수 또한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점과 다른 세대와는 상반되게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에서만 결혼생활 만족도와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점은 독특한 코호트 특성으로 흥미로운 부분이다.

〈표 7〉 ‘모성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0=전통적, 1=근대적)	모델1 전체 (N=6,651)		모델2 탈이념·정보화 코호트 (N=2,401)		모델3 산업화·민주화 운동코호트 (N=3,226)		모델4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 (N=1,024)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연령(1세 단위)	0.002	0.003	0.027**	0.010	-0.009	0.009	-0.017	0.023
교육수준	0.072*	0.034	0.136†	0.076	0.067	0.047	-0.067	0.078
자녀수	-0.011	0.028	0.002	0.055	0.013	0.044	-0.044	0.055
취업상태 (무직 기준)								
임금근로자	0.255***	0.061	0.381***	0.093	0.228*	0.090	-0.547*	0.251
자영업자	0.236**	0.084	0.360*	0.149	0.258*	0.114	-0.317	0.259
기타	0.124	0.080	0.258	0.183	0.054	0.110	-0.029	0.168
가구소득	-0.001	0.008	-0.008	0.015	-0.000	0.000	0.000	0.000
종교(유교 기준)								
불교	0.210	0.544	0.304	1.467	0.610	0.676	-1.542	1.264
기독교 및 천주교	0.250	0.544	0.483	1.466	0.601	0.677	-1.526	1.268
기타 및 종교없음	0.337	0.542	0.534	1.464	0.691	0.674	-1.339	1.265
가사노동 부담 만족도	-0.027	0.029	0.006	0.048	-0.042	0.041	-0.079	0.079
결혼생활 만족도	-0.020	0.035	0.038	0.064	0.022	0.050	-0.277**	0.087
주관적 건강상태	-0.005	0.018	0.047	0.031	-0.004	0.027	-0.104*	0.048
거주 지역 (수도권기준)								
충청권	0.177*	0.082	-0.115	0.133	0.318**	0.117	0.502*	0.250
영남권	0.091	0.069	0.074	0.108	0.036	0.099	0.386†	0.226
호남권	-0.378***	0.083	-0.256†	0.136	-0.392**	0.121	-0.325	0.244
강원권	0.980***	0.130	1.013***	0.248	0.941***	0.182	1.308***	0.322
제주도	-0.553**	0.165	-0.574*	0.237	-0.665**	0.258	-0.253	0.539
상수	-0.681	0.673	-3.049	1.594	-0.731	0.921	4.062	2.058
LR chi2	169.91		65.88		91.72		73.11	
자유도	18		18		18		18	
유의확률	0.0000		0.0000		0.0000		0.000	
Log-likelihood	-4457.8044		-1615.5248		-2158.4635		-649.84576	
Pseudo R ²	0.0187		0.0200		0.0208		0.0533	

주: †p<.10, *p<.05, **p<.01, ***p<.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기혼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세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그에 작용하는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와 연령 효과(Aging effect)가 어떻게 혼재되어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패널(KLoWEP)” 1~7차(2007~2018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성역할 태도 변화에 나타나는 연령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동일 코호트를 추적하여 연령 변화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종단면 자료(“여성가족패널(KLoWEP)” 1~7차(2007~2018년))를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세대별 차이에 나타나는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의 교호작용을 검증하기 위해 “여성가족패널(KLoWEP)” 7차(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동일 시점의 세대 간 태도 차이를 비교하였다.

성역할 태도 변수 구성을 위해 구성문항과 그 관련 이론은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로 구분하여 성별 분업에 대한 태도와 여성 취업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세대코호트는 역사적 경험을 구성 기준으로 하여 시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 출생),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0~1954년 출생),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 출생)로 구분하였다.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요인(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종교, 취업상태)과 가족 환경적 요인(자녀 수, 가구소득, 거주 지역, 결혼생활 만족도,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등을 통제 변수로 구성하였다. 결혼생활 만족도와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변수를 포함하므로 분석대상을 기혼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먼저 동일 코호트에 나타나는 연령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1차(2007년)부터 7차(2018년) 자료를 이용해 기초 통계 분석한 결과,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에서는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가 평균 2.5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가장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0~1954년)가 평균 2.43점,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이 평균 2.23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점수가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발테스(Baltes)의 코호트*연령 효과 패턴 모형을 이용하였는데, ‘남성생계부양자 이

데올로기' 관련 태도는 발테스의 추론모델 중 유형(2)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정리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는 모든 세대에서 진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 세대별로 그 변화패턴의 기울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의 교호작용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른 세대보다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0~1954년)에서 그 기울기가 더 작게 나타났는데, 이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태도의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세대보다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는 시간이 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파르게 증가하고 각 년도마다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모성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에서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가 평균 2.36점,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0~1954년)가 평균 2.35점,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가 2.22점 순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부분은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 보다 '모성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에 있어 모든 년도와 전 세대에서 평균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보이며, 세대 간 격차도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에 관계없이 자녀 양육은 여성의 역할이 크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아직 유지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성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 변화의 그래프는 발테스의 추론모델 중 유형(1)과 (2)가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모든 세대가 동일한 간격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연령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0~1954년)와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는 각 코호트별로 간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모든 세대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하고 있어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가 동시에 주효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의 변화패턴은 자세히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울기가 크게 변함으로써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의 교호작용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일 시점의 연령 코호트 간에 작용한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간의 교호작용을 검증해보기 위해 7차(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에서는 모든 세대를 포함한 모델에서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 효과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각 세대를 구분한 모델들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코호트 효과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었으나 연령 변수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간의 교호작용이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모성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는 코호트와 관계없이 취업상태와 거주 지역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변수는 탈이념·정보화 코호트(1988~1971년)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나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와의 교호작용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세대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다르게 나타나 세대코호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성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에서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의 교호작용이 있음을 통해 미래의 모성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인식은 지금까지의 태도 변화와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앞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와 모성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근대적 인식이 맞물려 변화해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제도적 지원과 함께 이에 대한 사회 인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기혼 여성의 성역할 태도에 있어 각 세대별로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의 교호작용 작동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를 보이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경험적으로 검증해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각 세대별 성역할 태도 및 인식에 있어 차이를 이해하고 근대적이고 평등적인 성역할 태도로의 변화를 위한 방향을 마련할 수 있으며, 세대 간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세대효과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한 연령 효과, 코호트 효과, 기간 효과 중 기간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명해내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기간효과는 특정시점의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므로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앞으로 오랜 기간 축적된 시계열 조사 자료를 통해 성역할 태도를 비롯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에 있어 세대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더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명언·김의철·박영신(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6권 제1호. 181-204.
- 김복순(2007). “근대초기 모성담론의 형성과 젠더화 전략”,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4권. 5-51.
- 김소정(2013).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인기 인구 집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4권 제1호. 89-111.
- 김영미·류연규(2013). “젠더레짐에 따른 성역할태도 결정요인 차이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제25집 2호.
- 김영미·류연규(2016). “남성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다층분석: 26개 국가 비교”. 사회과학연구. 제32집 2호.
- 김정운(2001). “아동의 생산과 소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6권 제2호. 59-79.
- 김혜영(2005). “가족의식의 세대적 특성”. 가족과 문화. 제17집 1호. 115-146.
- 나은영·민경환(1998). “한국문화의 이중성과 시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4호 제1호. 75-93.
- 나은영·차재호(1999). “1970년대와 1990년대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3호 제2호. 37-60.
- 문숙재·허경옥·홍운정(1997). “부부간 가사노동분담과 공평성 인지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제2호. 345-358.
- 문영표(1989). 도시부부의 성역할태도 및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숙·서이종·장세훈(2012). 세대간 소통 및 화합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 박미금(1984). 도시 저소득 취업주부의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의식과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박재홍(2003).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코호트적 시각에서”. 한국사회학. 제37권 제3호. 1-23.
- 박재홍(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통권 제 81호. 10-34.
- 박재홍(2017). 세대 차이와 갈등(이론과 현실). 경상대학교출판부.

- 백선미(2006).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세대별 비교.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신경아(2014). “신자유주의시대 남성 생계부양자의식의 균열과 젠더관계의 변화”. 한국여성학. 제30권 제4호. 204-224.
- 신송이(2016). “모성 이데올로기로 인한 양육 초기 여성의 어려움”. 연세상담코칭연구. 제6호. 57-80.
- 원숙연(2014). “성-역할 고정관념의 지형변화와 여성정책에 갖는 함의: 1996년과 2010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20권 제3호. 141-171.
- 원숙연·김예슬(2017). “성역할 인식의 영향요인과 정책적 함의 - 모성 및 남성부양자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연구. 제17권 제2호. 269-311.
- 유계숙(2010). “맞벌이부부의 가사분담이 부인의 일-가족 전이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제49권 1호. 41-69.
- 윤경자(1997).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제15권 4호. 221-235.
- 윤명희·임정빈(1985). “도시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제3권 2호. 45-59.
- 은기수·이윤석(2005). “한국의 가족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인구학. 제28권 제1호. 107-132.
- 이갑윤(2008). “한국선거에서의 연령과 투표참여”. 의정연구. 제14권 2호. 93-115.
- 이건정·마예월(2013). 지역사회 노인의 지각된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33권 4호. pp.881-893.
- 이내영·정한울(2013). “세대균열의 구성 요소: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한국의 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19권 3호. 37-83.
- 이미경(2004). “북한의 모성이데올로기-『조선녀성』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정치외교사논총. 제 26집 제1호. 389-419.
- 이미숙(1996). “맞벌이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성역할정체감이 가사분담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집. 제16권 1호. 153-173.
- 이명숙·김명애·고효정(2002). “한국인의 성역할 정체감 검사 도구 개발”. 한국간호과학회지. 제32권 3호. 373-383.
- 이선미(1995). 부모 자녀의 성역할 태도에 관한연구 - 주부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형(2011).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한국여성들의 모성인식에 대한 세대비교연구

- 구”. 페미니즘 연구. 11권 1호. 59-99.
- 이신숙·이경주(1999). “남자노인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19권 2호. 1-13.
- 이은아(2009). “청소년의 성역할 태도에서의 차이: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 6. 19.
- 이정아(1997). 부산시 기혼남성의 성역할태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2008). “한국의 자살: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 분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 임나현(2016).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1호. 230-240.
- 전상진(2002). “세대사회학의 가능성과 한계: 세대개념의 분석적 구분”. 한국인구학. 제25권 2호. 193-230.
- 전영수(2013). 세대전쟁. 이인사각.
- 전혜성·서미아(2012). “중년기 부부의 부부권력 및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349-357.
- 정순돌·배은경·최혜지(2012). “세대별 부양의식 및 성역할 인식 유형”. 한국가족복지학. 제17권 2호. 5-23.
- 정태연·한광희(2001). “20대가 지각한 청소년과 성인과의 세대차이”. 한국노년학. 제21권 1호. 1-14.
- 조성남·박숙미(2002). “한국의 세대관련 연구에 나타난 세대개념의 구분과 세대갈등을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일 고찰”. 사회과학연구논총. 제9권. 39-68.
- 조숙·정혜정·이주연(2015).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모성이데올로기 인식과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관계 비교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0권 1호. 25-49.
- 최규련(1984).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1호. 61-84.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1~7차(2007~2018년).
- 한완상(1991). “한국사회에서 세대갈등에 대한 한 연구”. 계간 사상. 통권 제8호. 248-309.
- 한지숙·유계숙(2007). “근로자의 성역할 태도와 일가족 지향성이 일-가족 갈등 / 축진 및 가족친화제도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5호 143-166.
- 홍덕률(2003). “한국사회의 세대 연구”. 역사비평. 통권 64호. 150-191.

- 홍지아(2014). “한국모성담론의 역사성: <신여성>과 EBS<부모>가 제시하는 모성의 구성방식 비교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제38권 제1호. 205-228.
- Baltes, P.B. (1968). Longitudinal and Cross-Sectional Sequences in the Study of Age and Generation Effect. *Human Development*. 31. 262-272.
- Choi, Y. S., Jang, C. J., Jo, H. S., Choi, Y. J., Jang, S. B., Park, Y. S., Lee, N. H., Jo, D. S., & Lee, E. H. (1999). *Women's health nursing I*. Seoul. Soomoosa.
- Crompton, Rosemary. (2001). Gender Restructuring, Employment, and Caring,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re & Society*. 8(3). 266-291.
- Derogatis, L., & Melisaratos, N. (1979). The DSFI: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sexual functioning.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5(3). 244-281.
- Elvin-Nowak, Y. and Thomsson, H. (2001). Motherhood as idea and practice: Adiscursive understanding of employed mothers in Sweden. *Gender and Society*. 15. 407-428.
- Esler, Anthony. (1984). The Truest Community: Social Generations as Collective Mentalities. *Journal of Social Issues*. 56(3). 425-442.
- Feuer, Lewis S. (1969). *The Conflict of Generations*. New York/London: Basic Books.
- Fortin, N. M. (2005). Gender Role Attitudes and the Labour-Market Outcomes of Women across OECD counties.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1(3). 416-437.
- Hattery, A. J. (2001). *Women, work, and family: Balancing and weaving*. Thousands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Hiller, D. V., & Philliber, W. W. (1986). The division of labor in contemporary marriage: Expectations, perceptions and performance. *Social Problems*. 33(3). 191-201.
- Ishii-Kuntz, M., & Coltrane, S. (1992). Remarriage, stepparenting, and household labor. *Journal of Family Issues*. 13(2). 215-233.
- Jensen, L. C. & Jensen, J. (1993). Family value, religiosity and gender. *Psychological Reports*. 13(2). 429-430.
- Kawada, T.(2003). Self-rated health and life prognosis. *Archives of*

- medical research.* 34(4). 343347.
- Kertzner, David I. (1983).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merican Review of Sociology.* 9. 125-149.
- Krausz, S. 1986. Sex roles within marriage. *Social work,* 31, 457-464.
- Kulik, L. (2002). The impact of social background on gender-role Ideology. *Journal of Family Issues.* 23(1). 53-73.
- Lewis, Jane. (2001). The Decline of the Male-Breadwinner Model: Implication for Work and Care, *Social Policy.* 2(3). 159-173.
- Mannheim, Karl. (1952(1928)). The Problem of Generations,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76-320.
- Millán-Calenti JC, Sánchez A, Lorenzo T, Maseda A. (2012) Depressive symptoms and other factors associated with poor self-rated health in the elderly: gender differences. *Geriatrics and Gerontology International.* 12(2). 198-206.
- Money, J., & Ehrhardt, A.A. (1972). *Man and woman, boy and girl: Differentiation and dimorphism of gender identity from conception to maturity.* Johns Hopkins U. Press.
- O'Connor, J. and Orloff, S. and Shaver, S. (1999). *States, Markets, Families: Gender, Liberalism and Social Policy in Australia, Canada,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nayotoca, E., & Brayfield, A. (1997). National context and gender ideology: Attitudes toward women's employment in Hungary and the United States. *Gender & Society.* 11(5). 627-655.
- Rintala, Marvin. (1974). Generations: Political Generations in D. L. Sills(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6. Macmillan & Free Press. 92-96.
- Ryder, Norman B. (1965). The Cohort as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6). 843-861.
- Schaie, K Warner, and Iris A. Parham. (1997). Cohort-Sequential Analysis of Adult Intellectu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13. 649-53.
- Sjöberg, O. (2004). The Role of family policy institutions in explaining

gender role attitudes: a comparative multi-level analysis of 13 industrialize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4(2). 107-123.

Treleavan, C. (2015). Gender, Generation, and Jobs: Differences in Gender Role Ideologies by Age and Occupation. *MA Research Paper*. 1.

Twenge, J.M. (1997). Changes in masculine and feminine traits over time: A meta-analysis.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36(5-6). 305-325.

Ylva Elvin-Nowak and Heléne Thomsson. (2001). Motherhood as Idea and Practice: A Discursive Understanding of Employed Mothers in Sweden. *Gender and Society*. 15(3). 407-428.

Abstract

Cohort Effect and Age Effect of the Difference in Gender role Attitudes per Generation among Married Women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Korean First to Seventh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Lee, Jungyun*·Kim Ju-hyun**

Previous research on gender role attitudes pointed out the difference in gender role attitudes between older and younger generations that older generation tends to be traditional and younger to be nontraditional. However, there is a need for further analysis due to the difference per specific gender role attitudes attributed to the change in age and also detected various aspects per cohort groups with shared social experiences in terms of history and culture. Henc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whether aging effect, which maintains and strengthens particular attitude through aging, is present in generational gap from change of gender role attitudes and how cohort effect and aging effect are manifested when both effects are mixed. For the analysis, 1st to 7th results of KLoWF(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were utilized and gender role attitudes specifically related to male breadwinner ideology and motherhood ideology have been examined. As a result, the gender role attitudes among Korean married women have the tendency to move towards liberal attitude compared to the past and regardless of the generational difference. From the change in slope per generation, interaction between cohort effect and aging effect can be assumed. Furthermore, when affecting factors were analyzed by grouping gender role attitudes of the same period per generation,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significant variables varied per generation.

Keywords : married women, generation, gender role attitude, cohort effect, aging effect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Soci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